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 및 부모 이외 애착대상의 수용-거부, 행동통제와 심리적 적응 간의 관계

Parental and Partner Acceptance-Rejection, Behavioral Control,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정윤주* · 이주리

인천대학교 소비자 아동학과 · 중앙대학교 아동복지학과

Chyung, Yun-Joo* · Lee, Ju-Lie

Dept. of Consumer & Child Studies, University of Incheon · Dept. of Childwelfare, Chung Ang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1) whether romantic partners' or close friends' acceptance-rejection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is related to their psychological adjustment indicated by hostility/aggression, dependency, negative self-esteem, negative self-competence, emotional unresponsiveness, emotional instability, and negative world view; (2) whether parents' behavioral control in childhood and romantic partners' or close friends' behavioral control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are related to their psychological adjustment; (3) how parents' behavioral control and acceptance-rejection in childhood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are related with each other; and (4) how romantic partners' or close friends' behavioral control and acceptance-rejection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are related with each other. The subjects were 163 college students enrolled in universities located in Seoul or Kyungki-do in Korea. The results indicated that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their romantic partners' or close friends' acceptance-rejection are related to their psychological adjustment, that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their parents' behavioral control and romantic partners' or close friends' behavioral control are related to their psychological adjustment, and that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parents' behavioral control are related to their perceptions of parents' hostility/aggression, indifference, and rejection and the results were the same for the romantic partners' or close friends' behavioral control and acceptance-rejection.

Key Words : acceptance-rejection, behavioral control, psychological adjustment.

I. 서론

인간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소속감을 느끼고, 인정받고, 사랑 받는 경험은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다. 이와 같은 소속감 및 수용에 대한 요구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 중 하나이며 인간 행동의 동기로 작용한다. 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Maslow(1970)의 욕구위계이론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경험적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도 인간은 기본적인 욕구로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필요로 한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Baumeister & Leary, 1995). 인간이 가지고 있는 관계에 대한 요구가 만족되려면 부정적 정서 경험보다는 주로 긍정적인 정서 경험을 할 수 있는

대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이러한 대인 관계에서의 유대가 지속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관계에 대한 요구가 충족되지 못한다면 인간은 심리적, 신체적 건강 상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심리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즉 인간은 본질적으로 주변의 중요한 사람들과 강한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고 이들로부터의 긍정적인 반응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다.

인간은 오랜 진화 과정을 거치며 주변의 중요한 사람들로 부터 긍정적 반응을 필요로 하는 정서적 욕구를 발달시키게 되었다는 관점에 입각하여 Rohner(1975, 1986)는 부모의 수용-거부 이론(parental acceptance-rejection theory: PARTheory)을 주창하였다. 이 이론은 부모의 수용-거부의 원인, 결과 및 관련 변수들을 예측하고 설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부모의 수용-거부에 관한 보편적인

* Corresponding author: Yun-Joo Chyung
Tel: 032) 770-8251, Fax: 032) 770-8250
E-mail: ychyung@incheon.ac.kr

원리를 발견하고자 한다(Rohner, 1975, 1986; Rohner & Khaleque, 2005).

이 이론에서 부모의 수용-거부는 연속체 개념으로 여겨진다. 연속체의 한 쪽 끝인 수용은 부모가 자녀에 대해 애정을 느끼고 돌봐주고, 지지해 주며, 위안을 주는 등의 행동으로 애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수용과 상반되는 개념으로서 반대 쪽 끝인 거부는 자녀에 대해 부모가 애정의 감정을 느끼지 않거나 이런 감정에 입각한 행동을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Rohner, Khaleque, & Cournoyer, 2005). 부모의 수용-거부가 표현되거나 자녀에 의해 지각되는 방식은 온정/애정, 적대감/공격성, 무관심/방치, 미분화된 거부의 4가지이다. 이 중에서 미분화된 거부는 자녀가 느끼기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거나 소중히 여기지 않거나 관심이 없지만 방치나 학대 등 부모의 거부적 태도가 행동으로 분명히 표현되지 않는 것이다(Rohner, 1986).

이상과 같은 부모의 수용-거부 이론에서 제시된 원리들은 다양한 문화권에서 연구되었고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어왔으며 이를 통해 부모의 수용-거부와 자녀의 성격 및 심리적 적응에 관하여 보편적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게 되었다(Khaleque & Rohner, 2002). 부모의 수용-거부 이론의 원리 중에서도 특히 아동기에 누구보다 중요한 애착 대상인 부모로부터의 거부에 대한 지각이 아동기나 성인기의 성격 및 심리적 적응과 관계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성격 하위이론(personality subtheory)을 검증하려는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여러 문화권에서 수행된 이러한 연구들(e.g., 황혜정, 1997; Abrams, 1998; Cournoyer, 1988; Haque, 1986; Kitahara, 1987; Salama, 1986; Rohner & Chaki-Sircar, 1988/2000; Veneziano, 2000)은 부모의 거부적인 양육 태도로 인해 부모로부터의 긍정적 반응을 얻으려는 기본적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한 자녀들이 아동기나 성인기에 부정적인 성격 및 심리적 특성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오랜 기간에 걸쳐 산출되어 온 이러한 연구결과들에 입각하여 Rohner(2004)는 인종, 지역, 언어, 문화 등의 다양성에 상관없이 인간에게는 부모의 수용-거부에 대해 일정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보편적 경향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즉 부모가 거부적이라고 지각하는 아동이나 과거 아동기에 부모가 거부적이었다고 지각하는 성인은 부모의 거부를 경험한 데 대한 반응으로 특정한 성격 특성 유형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다.

부모로부터의 거부와 관련되는 성격 특성은 7가지로서 적대감 및 공격성, 의존성 또는 방어적 독립성, 낮은 자존감, 낮은 자아 유능감, 정서적 냉담함, 정서적 불안정, 부정적 세계관이다. 이들 부정적 성격 특성 중에서 낮은

자존감, 정서적 냉담함, 부정적 세계관 등은 부모의 거부를 경험함으로써 형성된 왜곡된 심적 표상이 표현된 것으로 여겨진다(Rohner, 2002). 다시 말하면 아동기에 부모로부터의 거부를 경험하는 것은 사회 인지 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쳐 자아, 타인, 대인 관계에 대해 부정적인 심적 표상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가치감이 낮고 타인의 정서적 표현에 대해 충분히 반응적이지 못하며 부모 이외의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애착이론에서도 제시된 바 있는 것으로서(Bowlby, 1969/1982; Cassidy & Shaver, 1999) 애착 대상의 거부로 인해 형성된 심적 표상은 인간이 어떤 경험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 지각하고, 이해하고, 반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동기에 부모로부터의 거부를 경험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에 기술된 바와 같은 부정적 성격 특성 유형을 보이는 경우가 발견되었고 이런 현상은 이성 친구(애인), 친한 친구, 배우자 등 부모 이외 애착 대상으로부터 거부를 경험한 결과일 것으로 추론 되었다(Rohner, 2004). 부모의 수용-거부 이론은 이러한 추론에 근거하여 부모이든 아니든 애착 대상으로부터 거부적 태도를 경험하는 것은 인생의 어떤 시기에서도 아동기 때 부모로부터의 거부를 경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격 및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가설을 설정하게 되었고 부모의 수용-거부 이론의 관심 범위는 아동기 이후 부모 이외 애착 대상의 수용-거부로까지 확장되었다(Rohner et al., 2005). 아동기 이후 부모 이외 애착 대상의 거부도 아동기 때 부모의 거부와 마찬가지로 성격 특성과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에 대한 고찰은 지금까지 2개 문화권(미국과 인디아)에서만 이루어졌는데 이 연구들에서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가 산출되었다(Khaleque, 2004; Parmar & Rohner, in press; Varan, in press). 그러나 이 새로운 가설에 대한 검증은 아직 초기 단계로서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문화권에서의 연구가 요구된다.

한편 부모의 수용-거부 이론에서는 수용-거부와 함께 행동통제를 자녀 양육 태도를 구성하는 주요 변수로 고찰해왔다. 행동통제는 한 개인이 다른 개인의 행동에 대해 제한을 두거나 어떤 요구나 지시를 하거나 규칙을 설정하는 것과 이러한 제한, 요구, 지시, 규칙 등을 따르도록 일관성을 가지고 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행동통제도 여러 문화권에서 연구되어 왔으며 자녀에 의해 통제적으로 지각된 부모일수록 덜 수용적인 것으로 지각되는 결과들이 보고되어 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한국 청소년이나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에서만은 부모의 행동통제 정도가 높을수록 자녀가 부모를 더욱 수용적으로 지각한다는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났다(Kim & Rohner, 2002; Pettengill & Rohner, 1985).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의 결과만 다수의 다른 문화권에서 연구된 결과와 다르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그런데 위에 제시된 연구 중 Kim & Rohner (2002)는 한국계 미국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한국 청소년을 연구대상으로 한 연구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Pettengill & Rohner (1985)는 20년 전에 수행된 것으로서 그동안 한국에서 있었던 사회적, 문화적 변화를 고려할 때 현재의 한국 청소년들은 부모의 수용-거부와 행동통제를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대한 고찰은 의의가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의 수용-거부에 대한 지각과 행동통제에 대한 지각 간의 관계 양상에 대한 고찰을 하는데 있어서 본 연구는 부모의 수용-거부가 표현되고 지각되는 방식들(온정/애정, 적대감/공격성, 무관심/방치, 미분화된 거부) 중 어느 것이 행동통제에 대한 지각과 가장 강한 관계를 보이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다른 문화권에서의 연구와 다른 결과를 얻었던 한국 청소년의 부모 양육에 대한 지각에 대해 부가적인 설명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부모의 수용-거부 이론은 아동기 때 부모의 수용-거부에서 인생 모든 시기의 애착 대상의 수용-거부로 관심 대상이 확대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아동기 부모의 행동통제에 대한 지각과 청년기의 주요 애착 대상인 이성친구나 친한 친구의 행동통제를 모두 고찰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논의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부모의 수용-거부 이론을 확장하며 새롭게 제시된 연구문제(아동기 이후에 경험하는 부모 이외 애착 대상으로부터의 거부나 행동통제도 아동기에 경험하는 부모로부터의 거부나 행동통제와 마찬가지로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를 대학생들 대상으로 고찰하고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가 수많은 문화권에서 산출된 연구의 결과와 상반되게 나타났던 연구과제(부모의 행동통제와 부모의 수용-거부간의 관계)를 재고찰하여 한국의 청소년에게 있어서 부모의 행동통제의 의미를 숙고하고 같은 연구과제를 아동기 이후 애착 대상인 이성친구(애인)이나 친한 친구에게까지 적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이 지각한 아동기 때 부모의 수용-거부와 최근 부모 이외 애착 대상(이성친구나 친한 친구)의 수용-거부는 이들의 심리적 적응과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 대학생이 지각한 아동기 때 부모의 수용-거부와 최근 부모 이외 애착 대상의 수용-거부가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대학생이 지각한 아동기 때 부모의 행동통제와 최근 부모 이외 애착 대상의 행동통제는 이들의 심리적 적응과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4: 대학생이 지각한 아동기 때 부모의 행동통제와 최근 부모 이외 애착 대상의 행동통제가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5: 대학생이 지각한 아동기 때 부모의 행동통제와 수용-거부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6: 대학생이 지각한 최근 부모 이외 애착 대상(이성친구나 친한 친구)의 행동통제와 수용-거부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 사용된 자료는 서울과 수도권에 소재한 3개 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220명으로부터 수집되었고 그 중에서 최근 3년 동안 이성친구(애인)이나 친한 친구(청년기의 부모 이외 애착 대상)이 있다고 응답한 163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대상 대학생의 성별 인원 구성은 남학생 86명(52.8%), 여학생 77명(47.2%)이었고 연령의 범위는 만19세부터 만28세였으며 평균 연령은 만 23.03세(SD=2.13)로서 청년기 후기에 속한다. 학년별 인원 분포는 2학년이 16명(9.8%), 3학년이 89명(54.6%), 4학년이 58명(35.58%)이었다.

2.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는 부모와 부모 이외 애착 대상의 수용-거부 및 행동통제와 심리적 적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성인용 어머니 수용-거부/통제 척도(Adult PARQ/Control: Mother), 성인용 아버지 수용-거부/통제 척도(PARQ/Control: Fathers), 파트너 수용-거부/통제 척도(IPARQ/CQ), 성인용 성격 척도(Adult PAQ)가 사용되었다.

1) 어머니의 수용-거부

어머니의 수용-거부는 성인용 어머니 수용-거부/통제

척도(Rohner, 1990, 2005)의 전체 73문항 중에서 수용-거부를 측정하는 60문항을 번안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아동기(7세부터 11세 경까지)에 어머니가 수용적/거부적이었던 정도에 대해 성인이 지각하는 바를 알아보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서 온정/애정, 적대감/공격성, 무관심/방치, 미분화된 거부의 4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각 문항은 '거의 전혀 그렇지 않았다'(1점), '거의 그렇지 않았다'(2점), '때때로 그랬다'(3점), '거의 항상 그랬다'(4점)의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문항의 예를 들어보면 '어머니는 나에게 대해 좋게 말씀하셨다', '어머니는 나한테 화를 잘 내셨다', '어머니는 나에게 관심이 많으셨다', '어머니는 나에게 불만스러워하셨다' 등이다. 각 하위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온정/애정 척도의 20문항이 .92, 적대감/공격성 척도의 15문항이 .85, 무관심/방치 척도의 15문항이 .83, 미분화된 거부의 10문항이 .81이었고 이들 하위척도 문항을 모두 합한 수용-거부 척도 60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78이었다.

문항 중에서 수용을 측정하는 문항에 대한 응답은 역코딩한 후 문항 별 점수를 합하여 어머니의 수용-거부에 대한 지각 점수를 산출하였다. 어머니의 수용-거부에 대한 지각 점수의 범위는 최저 60점부터 최고 24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기 때 어머니의 거부가 높았던 것으로 지각한다는 의미이다. 보다 상세히 기술하자면, 150점 이상은 어머니로부터 수용보다 거부를 유의미하게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140점부터 149점까지는 어머니로부터의 거부 경험 정도가 높지만 수용에 대한 경험보다 높지는 않은 것으로, 121점부터 139점까지는 중간으로서 어머니의 거부를 다소 높게 지각하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60점부터 120점까지는 어머니를 상당히 수용적이었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Rohner et al., 2005).

2) 아버지의 수용-거부

아버지의 수용-거부는 성인용 아버지 수용-거부/통제 척도(Rohner, 1990, 2005)의 73문항 중에서 수용-거부를 측정하는 60 문항을 번안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아버지 수용-거부/통제 척도는 어머니 수용-거부/통제 척도와 동일한 내용과 구성이며 각 문항의 주어가 아버지로 되어 있는 점만 다르다. 각 하위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온정/애정 척도의 20문항이 .95, 적대감/공격성 척도의 15문항이 .86, 무관심/방치 척도의 15문항이 .87, 미분화된 거부의 10문항이 .83이었고 이들 하위척도 문항을 모두 합한 수용-거부 척도 60문항

의 내적 합치도는 .76이었다.

3) 어머니의 행동통제

어머니의 행동통제는 성인용 어머니 수용-거부/통제 척도(Rohner, 1990, 2005)의 전체 73문항 중에서 행동통제를 측정하는 13문항을 번안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했다. 이 척도는 아동기에 어머니가 통제적이었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서 각 문항은 '거의 전혀 그렇지 않았다'(1점), '거의 그렇지 않았다'(2점), '때때로 그랬다'(3점), '거의 항상 그랬다'(4점)의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문항의 예를 들어보면 '어머니는 내가 해도 괜찮은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정확히 알도록 하셨다', '어머니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항상 말씀하셨다', '어머니는 항상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셨다' 등이다. 어머니의 행동통제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73이었다. 13문항에 대한 응답 점수를 합하여 산출된 어머니의 행동통제에 대한 지각 점수의 범위는 최저 13점부터 최고 52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행동통제 정도를 높게 지각한다는 의미이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13점부터 26점까지는 어머니를 허용적이었다고, 27점부터 39점까지는 다소 통제적이었다고, 40점부터 45점까지는 상당히 통제적이었다고, 46점부터 52점까지는 구속이라 느낄 정도로 통제적이었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Kim & Rohner 2002).

4) 아버지의 행동통제

아버지의 행동통제도 성인용 아버지 수용-거부/통제 척도(Rohner, 1990, 2005)의 전체 73문항 중에서 행동통제를 측정하는 13문항을 번안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했다. 각 문항의 주어가 아버지인 점 이외에는 어머니의 행동통제를 측정한 척도와 내용과 구성이 동일하다. 아버지의 행동통제 척도를 구성하는 13문항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78이었다.

5) 부모 이외 애착대상의 수용-거부

부모 이외 애착대상의 수용-거부는 파트너 수용-거부/통제 척도(Rohner, 2001)의 73문항 중에서 수용-거부를 측정하는 60문항을 번안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도 부모의 수용-거부/통제 척도와 같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도 동일하되 부모 대신 이성친구나 친한 친구라는 대상에 맞게 문장이 다소 수정된 것이다. 각 하위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의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는 온정/애정 척도의 20문항이 .93, 적대감/공격성 척도의 15문항이 .89, 무관심/방치 척도의 15문항이 .86, 미분화된 거부의 10문항이 .83이었고 이들 하위척도 문항을 모두 합한 수용-거부 척도 60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81이었다.

6) 부모 이외 애착대상의 행동통제

부모 이외 애착대상의 행동통제도 친밀한 파트너 수용-거부/통제 척도(Rohner, 12001)의 전체 73문항 중에서 행동통제를 측정하는 13문항을 번안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했다. 이 척도도 부모의 행동통제 척도와 내용과 구성이 동일하되 이성친구 또는 친한 친구라는 대상에 맞게 다소 수정된 것이다.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6이었다.

7) 심리적 부적응

심리적 부적응은 성인용 성격 척도(Rohner, 1990)를 번안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의 수용-거부 이론의 성격 하위이론에서 다루고 있는 적대감/공격성, 의존성, 부정적 자존감, 부정적 자아유능감, 정서적 냉담함, 정서적 안정, 부정적 세계관을 측정하는 7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척도는 9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어 총 63문항이다. 각 문항은 '거의 전혀 그렇지 않았다'(1점), '거의 그렇지 않았다'(2점), '때때로 그랬다'(3점), '거의 항상 그랬다'(4점)의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문항의 예를 들어보면 '나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빈정대기를 좋아한다', '나는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 애정 어린 태도를 보이는 것이 쉽다', '내가 보기에 이 세상은 좋고 행복한 곳이다', '내가 하는 일에 조그만 어려움이 생겨도 나는 마음이 많이 상한다', '나는 내가 거의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다고 느낀다', '나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좋다' 등이다. 각 하위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적대감/공격성 척도가 .72, 의존성 척도가 .80, 부정적 자존감 척도가 .76, 부정적 자아유능감 척도가 .86, 정서적 냉담함 척도가 .78, 정서적 불안정 척도가 .82, 부정적 세계관 척도가 .87이었고 이들 하위척도 문항을 모두 합한 심리적 부적응 63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94였다. 심리적 적응 척도에 대한 응답 점수의 범위는 최저 63점부터 최고 252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적응적이라는 의미이고 157점을 넘을 경우에 적응적이기보다는 부적응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3. 연구 절차 및 분석 방법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한 자료는 질문지를 통해 조사되었다. 조사는 해당 대학교의 강의실에서 교수의 협조를 얻어 이루어졌다. 사전에 연구자로부터 연구의 목적과 질문지 응답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들은 교과 담당 교수가 질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해 주었고 나중에 연구자가 회수된 질문지를 수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version 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분석 방법에 대해 기술하면, 우선 연구에 사용된 척도들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내적 합치도를 산출하였고, 아동기 때 부모의 수용-거부 및 부모 이외 애착대상의 수용-거부에 대한 지각과 심리적 적응 간의 관계, 아동기 부모의 행동통제 및 부모 이외 애착대상의 행동통제에 대한 지각과 심리적 적응 간의 관계, 아동기 부모의 행동통제와 수용-거부 간의 관계, 부모 이외 애착대상의 행동통제와 수용-거부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대학생이 지각한 아동기 때 부모의 수용-거부 및 통제와 최근 부모 이외 애착 대상의 수용-거부 및 통제가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해석

연구 문제 고찰을 위한 분석에 앞서 조사에 응답한 대학생들이 지각한 아동기 때 부모의 수용-거부, 이성친구나 친한 친구의 수용-거부 및 심리적 적응의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살펴보았다. 대학생들이 지각한 아동기 때 아버지의 수용-거부 평균은 101.58(SD=25.53), 어머니의 수용-거부 평균은 98.68(SD=20.65)로 이들이 아들이었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거부적이기보다는 수용적이었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친구나 친한 친구의 수용-거부도 94.88(SD=22.10)로서 대체로 수용적인 것으로 지각하였다.

행동통제에 대해서는 아동기의 아버지(M=32.91, SD=6.15), 어머니(M=33.48, SD=5.03), 최근 부모 이외 애착대상(M=28.31, SD=6.73) 모두에 대해서 다소 통제적인 것으로 지각하였다. 또한 심리적 적응 경향은 평균이 139.51(SD= 23.37)로서 적응적이라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었다.

1. 아동기 때 부모의 수용-거부 및 청년기 이성친구나 친한 친구의 수용-거부와 심리적 부적응

대학생이 지각한 아동기 때 부모의 수용-거부와 심리적 적응 간의 관계가 청년기 이성친구나 친한 친구의 수용-거부와 심리적 적응 간의 관계와 같은 경향으로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s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이 분석의 결과,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학생이 지각한 아동기 때 아버지의 수용-거부($r=.39, p<.01$), 어머니의 수용-거부($r=.50, p<.01$), 최근 부모 이외 애착대상의 수용-거부($r=.26, p<.01$)는 모두 대학생이 지각하는 심리적 적응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아동기에 부모가 거부적이었다고 지각할수록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도가 낮았으며 최근의 부모 이외 애착대상인 이성친구나 매우 친한 친구가 거부적이라고 지각할수록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 정도가 낮았다.

아동기 때 부모의 수용-거부와 최근의 부모 이외 애착대상의 수용-거부가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과 보이는 상관관계 경향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아동기 때 부모의 수용-거부 및 최근의 부모 이외 애착대상의 수용-거부와 심리적 적응을 구성하는 7가지 성격 특성 각각과 Pearson's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이 분석의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대학생이 지각한 아동기 때 아버지의 수용-거부와 대학생의 적대감/공격성, 의존성, 부정적 자존감, 부정적 자아 유능감, 정서적 냉담함, 정서적 불안정, 부정적 세계관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의존성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수용-거부와 성격 특성 변수들과의 관계도 아버지의 수용-거부와 성격 특성 변수들과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의존성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대학생의 부모 이외 애착대상의 수용-거부와 성격 특성들 간의 관

<표 1> 대학생이 지각한 아동기 부모의 수용-거부 및 청년기 이성친구나 친한 친구의 수용-거부와 심리적 부적응 간 상관관계(r)

	1	2	3	4
1. 아버지의 수용-거부				
2. 어머니의 수용-거부	.47**			
3. 이성친구/친한친구 수용-거부	.39**	.32**		
4. 심리적 부적응	.39**	.50**	.26**	

** p < .01

<표 2> 대학생이 지각한 아동기 부모의 수용-거부 및 청년기 이성친구나 친한 친구의 수용-거부와 심리적 부적응을 구성하는 성격 특성 간 상관관계(r)

	아버지 수용-거부	어머니 수용-거부	이성친구/ 친한 친구 수용-거부
적대감/공격성	.36**	.40**	.34**
의존성	-.03	.13	-.12
부정적 자존감	.43**	.44**	.29**
부정적 자아유능감	.36**	.49**	.24**
정서적 냉담함	.22**	.41**	.26**
정서적 불안정	.30**	.41**	.12
부정적 세계관	.37**	.32**	.20*

* p < .05, ** p < .01

계도 의존성과 정서적 불안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대학생이 아동기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거부적이었다고 지각할수록 적대적이며 공격적인 성향이 강하고,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며,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적고, 정서적으로 냉담하고 불안정한 경향이 크며 세상을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성격 특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학생이 최근의 부모 이외의 애착대상인 이성친구나 친한 친구가 거부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적대적, 공격적 성향, 자신에 대한 부정적 믿음, 자신감 부족, 정서적 냉담함,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성격 특성을 보이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런데 부모의 수용-거부와는 달리 부모 이외 애착대상의 수용-거부는 정서적 불안정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부모 이외 애착대상의 수용-거부 중에서 7가지 성격 특성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것은 어머니의 수용-거부였다.

2. 대학생의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아동기 때 부모의 수용-거부 및 청년기 이성친구나 친한 친구 수용-거부의 상대적 영향력

대학생이 지각한 아동기 때 부모의 수용-거부와 최근 부모 이외 애착대상인 이성친구나 친한 친구의 수용-거부가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의 상대적 크기를 알아보기 위하여 아동기 때 아버지의 수용-거부, 어머니의 수용-거부에 대한 지각, 최근의 이성친구나 친한 친구의 수용-거부에 대한 지각을 독립변수로 하여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을 설명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회

귀분석의 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학생이 지각한 아동기 때 어머니의 수용-거부가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아동기 때 어머니가 거부적이었다고 지각할수록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 정도가 낮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런데 대학생이 지각한 아동기 때 아버지의 수용-거부나 최근의 이성친구나 친한 친구의 수용-거부는 심리적 적응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에 대한 아동기 때 아버지, 어머니의 수용-거부 및 최근의 이성친구나 친한 친구의 수용-거부의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B	SE _B	β	t
아버지 수용-거부	.13	.07	.15	1.83
어머니 수용-거부	.48	.08	.46	6.05***
이성친구/친한친구 수용-거부	.04	.08	.05	.62
$R^2 = .32$				

*** p < .001

3. 아동기 때 부모의 행동통제 및 청년기 이성친구나 친한 친구의 행동통제와 심리적 부적응

대학생이 지각한 아동기 때 부모의 행동통제와 심리적 적응 간의 관계가 이들이 지각한 이성친구나 친한 친구의 행동통제와 심리적 적응 간의 관계와 같은 경향으로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s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이 분석의 결과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학생이 지각한 아동기 때의 어머니 행동통제만 심리적 적응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20, p<.01$)를 나타내었고 아버지의 행동통제($r=.10, n.s.$)나 최근의 부모 이외 애착대상의 행동통제($r=.10, n.s.$)는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즉 아동기에 어머니

<표 4> 대학생이 지각한 아동기 부모의 행동통제 및 이성친구나 친한 친구의 행동통제와 심리적 부적응 간 상관관계(r)

	1	2	3	4
1. 아버지의 행동통제				
2. 어머니의 행동통제	.38**			
3. 이성친구/친한친구 행동통제	.23**	.07		
4. 심리적 부적응	.10	.20**	.10	

** p < .01

가 통제적이었다고 지각할수록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 정도가 낮았는데 아동기 때 아버지의 통제 정도나 최근의 부모 이외 애착대상인 이성친구나 친한 친구가 통제적이라고 지각하는 정도는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과 의미 있는 관계가 없었다.

아동기 때 부모의 행동통제와 최근의 부모 이외 애착대상의 행동통제가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을 구성하는 성격 특성들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보이는지를 상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아동기 때 부모의 행동통제 및 최근의 부모 이외 애착대상의 행동통제와 심리적 적응을 구성하는 7가지 성격 특성 간의 Pearson's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어머니의 행동통제는 대학생의 부정적 자존감($r=.19, p<.05$), 부정적 자아유능감($r=.18, p<.05$), 정서적 불안정($r=.17, p<.05$)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부모 이외 애착대상의 행동통제는 대학생의 적대감/공격성($r=.26, p<.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아버지의 행동통제는 어느 성격 특성 변수와도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표 5> 대학생이 지각한 아동기 때 부모의 행동통제 및 이성친구나 친한 친구의 행동통제와 심리적 부적응을 구성하는 성격 특성 간 상관관계(r)

	아버지 행동통제	어머니 행동통제	이성친구/ 친한 친구 행동통제
적대감/공격성	.03	.12	.26**
의존성	.04	.16	.03
부정적 자존감	.15	.19*	.06
부정적 자아유능감	.12	.18*	.03
정서적 냉담함	.03	.14	.04
정서적 불안정	.11	.17*	.13
부정적 세계관	.01	.11	-.01

* p < .05, ** p < .01

4. 대학생의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아동기 때 부모의 행동통제 및 청년기 이성친구나 친한 친구 행동통제의 상대적 영향력

대학생이 지각한 아동기 때 부모의 행동통제와 최근의 부모 이외 애착대상인 이성친구나 친한 친구의 행동통제가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의 상대적 크기를 알아보기 위하여 아동기 때 아버지의 행동통제와 어머니의 행동통제에 대한 지각, 최근의 이성친구나 친한 친구의

행동통제에 대한 지각을 독립변수로 하여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을 설명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의 결과는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학생이 지각하는 아동기 때 아버지 및 어머니의 행동통제, 최근의 이성친구나 친한 친구의 행동통제가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을 설명하는 변수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에 대한 아동기 때 아버지, 어머니의 행동통제 및 최근 부모 이외 애착대상 행동통제의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B	SE _B	β	t
아버지 행동통제	.03	.32	.01	.09
어머니 행동통제	.70	.38	.16	1.85
이성친구/친한친구 행동통제	.04	.08	.05	.62
$R^2 = .04$				

5. 아동기 때 부모의 행동통제와 수용-거부간의 관계

대학생이 지각한 아동기 때 부모의 행동통제와 수용-거부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s 상관계수를 산출해 보았다. 우선, <표 7>에 제시된 아버지의 행동통제와 수용-거부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행동통제와 수용-거부 간에는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대학생이 아동기 때 아버지의 행동통제에 대해 지각하는 수용-거부에 대한 지각과 관계가 없었다. 하위 척도 중에서는 아버지의 온정/애정($r=.16, p<.05$), 적대감/공격성($r=.36, p<.01$), 미분화된 거부($r=.20, p<.05$)가 아버지의 행동통제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무관심/방치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표 8>에 제시된 대학생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행동통제와 수용-거부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행동통

<표 7> 대학생이 지각한 아동기 때 아버지의 행동통제와 수용-거부 및 수용-거부를 구성하는 변수들과의 상관관계(r)

아버지 행동통제	
아버지의 수용-거부	.06
온정/애정	.16*
적대감/공격성	.36**
무관심/방치	-.09
미분화된 거부	.20*

* $p < .05$, ** $p < .01$

<표 8> 대학생이 지각한 아동기 때 어머니의 행동통제와 수용-거부 및 수용-거부를 구성하는 변수들과의 상관관계(r)

어머니 행동통제	
어머니의 수용-거부	.26**
온정/애정	-.04
적대감/공격성	.50**
무관심/방치	.05
미분화된 거부	.41**

** $p < .01$

제와 수용-거부 간에 의미 있는 정적 상관관계($r=.26, p<.01$)가 나타났다. 즉 대학생이 아동기 때 어머니가 통제적이었다고 지각할수록 거부적이라고 지각했다. 하위 척도 중에서는 어머니의 적대감/공격성($r=.50, p<.01$), 미분화된 거부($r=.41, p<.01$)가 어머니의 행동통제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온정/애정과 무관심/방치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청년기 부모 이외 애착대상의 행동통제와 수용-거부간의 관계

대학생이 지각한 이성친구나 친한 친구의 행동통제와 수용-거부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표 9>와 같이 수용-거부 및 수용-거부를 구성하는 하위 개념인 온정/애정, 적대감/공격성, 무관심/방치, 미분화된 거부와 행동통제 간의 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대학생의 부모 이외 애착대상의 행동통제와 수용-거부 간의 관계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r=.39, p<.01$)를 나타내었다. 즉 대학생이 최근의 이성친구나 친

<표 9> 대학생이 지각한 이성친구나 친한 친구의 행동통제와 수용-거부 및 수용-거부를 구성하는 변수들과의 상관관계(r)

이성친구나 친한 친구의 행동통제	
이성친구나 친한 친구의 수용-거부	.39**
온정/애정	-.14
적대감/공격성	.66**
무관심/방치	.12
미분화된 거부	.48**

** $p < .01$

한 친구를 통제적이라고 지각할수록 거부적이라고 지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위 척도 중에서는 적대감/공격성 ($r=.66, p<.01$), 미분화된 거부($r=.48, p<.01$)가 어머니의 행동통제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정/애정이나 무관심/방치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수용-거부 이론을 확장하며 새롭게 제시된 연구문제들을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다수의 다른 문화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와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었던 연구문제를 다시 고찰하였다. 즉 청년기의 부모 이외 애착대상인 이성친구나 친한 친구의 수용-거부와 심리적 적응 간의 관계가 과거 아동기 때 부모의 수용-거부와 심리적 적응 간의 관계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지, 대학생이 지각한 아동기 때 부모의 행동통제와 최근의 이성친구나 친한 친구의 행동통제가 심리적 적응과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지, 대학생이 지각한 아동기 때 부모의 행동통제와 수용-거부 간의 관계와 최근의 이성친구나 친한 친구의 행동통제와 수용-거부 간의 관계는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를 알아보았다.

대학생이 지각한 최근의 이성친구나 친한 친구의 수용-거부와 심리적 적응 간의 관계가 아동기 때 부모의 수용-거부와 심리적 적응 간의 관계와 같은 경향을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대학생이 지각한 이성친구나 친한 친구의 수용-거부도 이들이 기억하는 아동기 때 아버지나 어머니의 수용-거부와 마찬가지로 심리적 적응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대학생이 최근의 이성친구나 친한 친구가 자신에 대해 거부적인 태도와 행동을 보인다고 지각할수록 심리적 적응도가 낮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 때 아버지 및 어머니의 거부적 태도에 대한 대학생의 지각과 심리적 적응도간의 관계에서도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이 결과는 부모의 수용-거부 이론을 확장하여 아동기 이후에 부모 이외의 애착대상으로부터 거부를 경험하는 것도 아동기에 부모로부터의 수용-거부를 경험한 것과 같이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또한 부모의 수용-거부 이론이 아동기 이후 부모 이외 애착대상인 이성친구, 친한 친구, 배우자의 수용-거부와 개인의 심리적 적응 간의 관계에 적용되는지를 알아본 소수의 선행연구들(Khaleque,

2004; Parmar & Rohner, in press)과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다른 문화권(미국, 인디아)에서 수행된 것인데 본 연구에서도 같은 경향을 발견한 것은 부모의 수용-거부 이론(Rohner, 1975, 1986; Rohner & Khaleque, 2005)을 확장하고 다양한 문화권으로 일반화하는 데 대한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그런데 연구 결과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대학생이 지각한 이성친구나 친한 친구의 거부와 심리적 부적응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은 미국이나 인디아에서 수행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아버지, 어머니, 이성친구나 친한 친구의 수용-거부와 대학생의 심리적 부적응간의 관계 정도는 미국이나 인디아에서의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즉 미국이나 인디아에서 수행된 연구(Khaleque, 2004; Parmar & Rohner, in press)에서는 대학생의 심리적 부적응과 가장 큰 상관관계를 보인 것이 부모 이외 애착대상의 수용-거부였고 다음으로 아버지의 수용-거부, 어머니의 수용-거부 순이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수용-거부가 아버지 및 이성친구나 친한 친구의 수용-거부보다 대학생의 심리적 부적응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다음으로 아버지의 수용-거부, 이성친구나 친한 친구의 수용-거부 순이었다. 또한 아버지의 수용-거부, 어머니의 수용-거부, 이성친구나 친한 친구의 수용-거부를 독립변수로 하여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을 예측한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어머니의 수용-거부만이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에 따라 아버지, 어머니, 부모 이외 애착대상의 역할 및 이들과의 정서적 유대 정도가 다른 데서 연유할 수 있으며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부모 이외 애착대상 중 누구에 대해 답했는지에 따라 서로 달리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미국과 터키에서 수행된 연구에서도 연구대상은 대학생이었고 평균 연령이 각각 22세와 23세로서 본 연구의 연구대상(23.03세)과 매우 유사했지만 이들 중에서는 기혼인 경우가 각각 8%와 9%로서 전원이 미혼인 본 연구의 대상과는 차이가 난다. 기혼인 연구대상들은 이성친구나 친한 친구가 아닌 배우자를 애착대상으로 하여 질문에 응답했으며 배우자는 이성친구나 친한 친구보다 더욱 강한 애착을 형성한 대상으로서 이들의 수용-거부가 과거 아동기 때 부모의 수용-거부보다 대학생들의 심리적 적응과 더욱 강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은 문화적으로 가족 중심적이며 효 사상을 바탕으로 부모자녀 관계를 이성관계나 부부관계보다 우선시하는 전통이 있어 부모 이외 애착대상보다는 부모의 수용-거부가 대학생들의 심리적 적응과 상대적으로 더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어머니의 수용-

거부가 아버지의 수용-거부보다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과 더 강한 관계를 나타낸 것은 자녀양육에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참여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즉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자녀 양육에서 일차적인 역할을 하므로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더 강할 것이며 이에 따라 아버지의 수용-거부에 대한 지각보다는 어머니의 수용-거부에 대한 지각이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에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대학생이 지각한 아동기 때 아버지 및 어머니의 수용-거부 및 최근의 이성친구나 친한 친구의 수용-거부와 심리적 적응 간의 관계를 보다 상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심리적 적응을 구성하는 7개 하위 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산출한 결과, 대학생이 지각한 아동기 때 아버지 및 어머니의 수용-거부와 대학생의 적대감/공격성, 의존성, 부정적 자존감, 부정적 자아 유능감, 정서적 냉담함, 정서적 불안정, 부정적 세계관과의 상관관계는 의존성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성친구나 친한 친구의 수용-거부와 하위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의존성과 정서적 불안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여기에서 우선 주목할 점은 부모나 부모 이외 애착대상의 수용-거부가 심리적 적응의 하위변수 중 의존성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아버지, 어머니, 이성친구나 친한 친구의 수용-거부와 의존성 간에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결과는 같은 연구문제를 고찰한 선행연구에서도 나타나 관계가 없거나 상관관계가 있더라도 미미했다(Rohner & Khaleque, 2005). 이러한 결과가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데 대한 설명은 두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애착대상의 수용-거부가 의존성과는 그다지 관계가 없어 연구결과가 현상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거나 의존성 척도의 타당도가 높지 않은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심리적 적응 척도를 구성하는 하위 척도 중에서 의존성 하위척도는 부모의 수용-거부 이론의 성격 하위이론에서 다루고 있는 의존성 구성체(construct)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해석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Rohner & Khaleque(2005)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의존성 척도의 타당성에 대한 추가 연구가 요구된다.

한편 아버지나 어머니의 수용-거부는 대학생의 정서적 불안정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이성친구나 친한 친구의 수용-거부는 정서적 불안정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은 결과는 아동기 이후 애착대상의 수용-거부와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 간의 관계와 아버지나 어머니의 수용-거부와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 간의 관계가 심리적 적응의 하위변수에 있어서는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정서적 불안정은 불안이나 걱정이 많은

성격특성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성격특성은 아동기 때 부모의 수용-거부에 의해 영향을 받은 후 아동기 이후 부모 이외 애착대상의 수용-거부에 의해서는 그다지 많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대학생이 지각한 최근의 이성친구나 친한 친구의 행동통제와 심리적 적응 간의 관계가 아동기 때 부모의 행동통제와 심리적 적응 간의 관계와 같은 경향을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아버지의 행동통제와 이성친구나 친한 친구의 행동통제는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어머니의 행동통제만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과 유의하지만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결과는 부모 이외 애착대상의 행동통제만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국외 선행연구(Rohner & Khaleque, 2005)의 결과와 대조적이다. 이 선행연구는 미국에서 수행된 것으로서 청년기 이후에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을 중요시하는 미국의 대학생들이 부모보다는 부모 이외의 애착대상으로부터 더 많은 영향을 받은 결과로 추측할 수 있다. 반면에 한국은 부모자녀 관계가 가족관계에서 중심이 되는 가족주의적인 문화 배경으로 인해 청년기에도 상대적으로 부모에 대한 심리적 의존도가 높으며 특히 일차적인 자녀 양육자인 어머니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 참여도가 높은 만큼 아버지의 행동통제나 부모 이외 애착대상의 행동통제보다는 어머니의 행동통제가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아버지의 행동통제, 어머니의 행동통제, 이성친구나 친한 친구의 행동통제를 독립변수로 하여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을 예측한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이성친구나 친한 친구의 행동통제 모두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변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상관관계 분석 결과 나타났던 약한 상관관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애착대상의 행동통제는 수용-거부에 비하여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음을 시사한다. 또한 아버지, 어머니, 이성친구나 친한 친구의 행동통제 간에 상관관계가 있어 공유되는 변량이 있기 때문에 이들 변수들을 동시에 회귀분석의 독립변수로 투입하였을 때 유의미한 결과가 산출되지 않은 것으로도 설명된다.

대학생이 지각한 아동기 때 아버지 및 어머니의 행동통제 및 최근의 이성친구나 친한 친구의 행동통제와 심리적 적응 간의 관계를 보다 상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심리적 적응을 구성하는 7개의 하위 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산출한 결과, 대학생이 지각한 아동기 때 아버지의 행동통제는 이들 하위 변수 중 어떤 것보다도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어머니의 행동통제는 하위변수들 중에서 부정적 자존감, 부정적 자아유능감 등 자아상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적 불안정과도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상관관계는 모두 낮은 수준에 불과했다. 이 결과는 부모의 행동통제는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가 미미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부모 이외 애착대상인 이성친구나 친한 친구의 행동통제도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을 구성하는 하위변수들 중에서 적대감/공격성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결과는 앞서 살펴본 부모나 부모 이외 애착대상의 수용-거부에 비해 행동통제는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에 대한 설명력이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애착대상의 행동통제는 대체로 심리적 적응에 우려할 만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부모의 행동통제와 수용-거부 간의 관계를 고찰한 선행연구 결과를 다시 고찰함으로써 한국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수용-거부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하여 대학생이 지각한 아동기 때 부모의 행동통제와 수용-거부 간의 관계를 피어슨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알아보았다. 그 결과 아버지의 행동통제는 아버지의 수용-거부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다시 아버지의 행동통제에 대한 지각과 수용-거부의 하위변수들에 대한 지각 간의 상관관계를 산출한 결과, 수용-거부의 하위변수들 중에서는 온정/애정, 적대감/공격성, 미분화된 거부가 아버지의 행동통제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대학생이 아동기 때 아버지의 행동통제가 강했다고 지각할수록 아버지의 애정/온정이 높았던 것으로 지각하며 적대적/공격적이었고 거부적이었다고 지각한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대학생들이 과거 아동기 때 아버지의 행동통제를 애정/온정적으로 여기지만 동시에 적대적/공격적이며 거부적으로 여기기도 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상관관계의 정도에서 볼 수 있듯이 아버지의 행동통제는 온정/애정($r=.16, p<.05$) 보다는 적대감/공격성($r=.36, p<.01$)이나 미분화된 거부($r=.20, p<.05$)와 더욱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대학생들이 아버지의 행동통제를 선행연구(Kim & Rohner, 2002; Rohner & Pettengill 1985)에서처럼 애정적이며 수용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즉 대학생들은 약하게나마 아버지의 행동통제를 애정으로 이해하지만 그보다는 적대감이나 거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더 크다는 것이다.

대학생이 지각한 아동기 때 어머니의 행동통제와 수용-거부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행동통제와 수용-거부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대학생이 아동기 때 어머니가 통제적이었다고 지각할수록 어머니가 거부적이었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어머니의

행동통제에 대한 지각과 어머니의 수용-거부의 하위변수들에 대한 지각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도 대학생이 아동기 때 어머니의 행동통제가 강했다고 지각할수록 어머니가 적대적/공격적이었고 거부적이었다고 지각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결과도 아버지에 관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청소년들이 어머니의 행동통제를 선행연구(Kim & Rohner, 2002; Rohner & Pettengill 1985)에서와는 대조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른 문화권에서와는 달리 한국의 청소년들은 부모의 행동통제를 애정과 관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던 선행연구들은 80년대 한국 청소년 및 미국 거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것으로서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 한국 청소년들이 부모의 행동통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최근에 급격히 이루어진 한국 사회의 사고방식 변화에 의해 부모의 양육에 대한 청소년들의 시각도 함께 달라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한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어 대다수의 다른 문화권에서와는 다른 연구결과가 산출되었던 선행연구 결과에 대한 재고찰의 결론은 한국의 현재 청소년들도 대부분의 다른 문화권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행동통제를 부모의 거부로 지각한다는 것이다.

한편 아버지의 행동통제를 미약하게나마 온정적/애정적인 의미로 보는 경향과 어머니의 행동통제를 아버지의 행동통제보다 더욱 부정적인 의미로 보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 기대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즉 평소 자녀 양육에 대한 관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아버지가 통제를 하는 것은 오히려 관심과 애정으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엄부자모를 이상적인 부모 역할 모델로 보는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어머니의 행동통제가 아버지의 행동통제보다 자녀들에게 보다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이 지각한 이성친구나 친한 친구의 행동통제와 수용-거부 간의 관계는 아동기 때 어머니의 행동통제와 수용-거부 간의 관계와 같은 경향을 보였다. 대학생이 부모 이외 애착대상인 이성친구나 친한 친구의 행동통제가 높은 것으로 지각할수록 적대적/공격적이며 거부적으로 지각한다는 의미이다. 이 결과는 청년기의 부모 이외 애착대상의 행동통제도 아동기 때 부모의 행동통제와 같은 의미로 청소년들에게 지각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는 부모의 수용-거부 이론에 근거하여 새롭게 제시된 연구문제인 아동기 이후 부모 이외 애착 대상으로부터의 거부 및 행동통제가 아동기 부모로부터의 거부나 행동통제와 마찬가지로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대학생을 대상으로 고찰하고 부모의 행동통

제와 부모의 수용-거부간의 관계를 고찰하여 한국 청소년에게 있어서 부모의 행동통제가 다른 문화권에서와 같은지를 살펴보고 같은 연구문제가 아동기 이후 애착 대상인 이성친구나 친한 친구에게까지 적용되는지를 알아 보았다. 결과를 요약해보면, 우선 청년기의 부모 이외 애착대상의 거부도 아동기 때 경험한 부모의 거부와 유사하게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냄으로써 부모의 수용-거부 이론을 아동기 이후의 애착관계로 확장하는 것이 한국 문화에서도 적용 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아동기 때 아버지의 행동통제는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과 관계가 없었으며 어머니의 행동통제나 부모 이외 애착대상의 행동통제는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과 약한 상관관계를 보여 행동통제가 수용-거부보다 심리적 적응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의미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모나 부모 이외 애착대상의 행동통제에 대한 지각과 수용-거부에 대한 지각 간의 관계에 대한 고찰은 한국 청소년들도 다른 문화권의 청소년들과 유사하게 행동통제를 애정과 관심으로 지각하기보다는 적대감이나 거부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문제에 대한 고찰은 시작 단계에 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 일정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지속적인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에서 보완할 측면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한국 일부 지역의 대학생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다른 연령대 및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특히 아동기 이후 애착대상으로서 중요한 배우자의 수용-거부나 행동통제에 대한 지각으로까지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도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해 나가기 위한 과정으로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적 자료를 사용한 것으로서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나 부모 이외 애착대상의 수용-거부나 행동통제와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 간의 상관관계만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변수간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때 부모의 수용-거부나 행동통제에 대한 지각을 대학생이 현재 기억하는 것으로 측정하였다. 이는 아동기 때의 부모에 대한 심적표상을 알아보기 위한 본 연구의 의도에 맞는 측정 방법이지만 어느 정도는 부모와의 현재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부모의 수용-거부 및 행동통제에 대한 아동기 때의 지각을 측정하여 청년기 때의 지각과 비교해본다면 아동기 경험에 대한 심적표상 개념의 타당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주제어 : 수용-거부, 행동통제, 심리적 적응

참 고 문 헌

- 황혜정 (1997).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와 부모의 수용-거부적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교육심리연구*, 11(3), 331-350.
- Baumeister, RF, Leary, MR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 497-529.
- Bowlby, J (1969/1982).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Cassidy, J, Shaver, PR (Eds.). (1999).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New York: Guilford Press.
- Cournoyer, DE (1988). *That unloved feeling: Coping with perceived maternal rejec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onnecticut at Storrs.
- Haque, A (1986). Social class differences in perceived maternal acceptance-rejection and personality dispositions among Pakistani children. In C. Kagitcibasi (Ed.), *Growth and progress in cross-cultural psychology* (pp. 189-195). Berwyn, IL: Swets North America.
- Khaleque, A (2004). Intimate adult relationships, quality of life,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Social Indicators Research*, 69, 351-360.
- Khaleque, A, Rohner, RP (2002).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A meta-analysis of cross-cultural and intracultural stud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 54-65.
- Kim, K, Rohner, RP (2002). Parental warmth, control, and involvement in schooling: Predicting academic achievement among Korean American adolescent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3, 127-140.
- Kitahara, M (1987). Perception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among Swedish university students. *Child Abuse and Neglect*, 11, 223-227.
- Maslow, A (1970). *Motivation and Personality (2nd ed.)*. New York: Harper & Row.
- Parmar, P, Rohner, RP (in press). Relations among perceived intimate partner acceptance,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among young adults in India. *Ethos*, 33(3).

- Rohner, RP (1975). *They love me, they love me not: A worldwide study of the effects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New Haven, CT: HRAF Press.
- Rohner, RP (1986). *The warmth dimension: Foundations of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theory*.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 Inc.
- Rohner, RP (2004). The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syndrome: Universal correlates of perceived rejection. *American Psychologist*, 59, 827-840.
- Rohner, RP, Chaki-Sircar, M (1988/2000). *Women and children in a Bengali village*. Hanover, NH: University Press of New England.
- Rohner, RP, Khaleque, A (2003).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parental control scale: A meta-analysis of cross-cultural and intracultural studi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4, 6, 643-649.
- Rohner, RP, Khaleque, A(Eds.). (2005). *Handbook for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4thed.). Storrs, CT: Rohner Research Publications.
- Rohner, RP, Khaleque, A, Cournoyer, DE (2005). Introduction to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theory, methods, evidence, and implications. In R. P. Rohner & A. Khaleque (eds.). *Handbook for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4th ed., pp. 1-35). Storrs, CT: Rohner Research Publications.
- Rohner, RP, Pettengill, SM (1985).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 rejection and parental control among Korean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6, 524-528.
- Rohner, RP, Rohner, EC (1981).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and parental control: Cross-cultural codes. *Ethnology*, 20, 245-260.
- Salama, MM (1986).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 -rejection and personality dispositions among college students in Egypt. *Egyptian Journal of Mental Health*, 27, 145-163.
- Varan, A (in press). Relation between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 and intimate partner acceptance in Turkey: Does history repeat itself? *Ethos*, 33(3).
- Veneziano, RA (2000). Perceived parental and maternal acceptance and rural African American and European American youths' 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123-132.
- (2005. 09. 20 접수; 2005. 11. 17 채택)